

제67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위해 기도

NAP(국가인권정책) 독소조항 입법저지 촉구, WCC 종교다원주의 반대



의장
임용재 목사
총회장

교단 총회(총회장 임용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11월 12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에서 열려 국가인권정책 독소조항에 반대하며, 동성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 하심을 감사드리고 더욱 혼란에 빠진 한반도평화를 위해 기도해 합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신재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안산시흥지교회장 이인규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6:9-13 말씀을 본문으로 '주기도문의 성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기도문을 통해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 있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의장 임용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교단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개회기도 후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 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신재영 목사는 교단입문보고사항으로 2019년도 목사고시대상자 오리엔테이션, 2018 전국사모단합대회, 은목위원회 모임 등의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설교
김상용 목사
증경총회장



개회기도
이창재 목사
증경총회장



축도
이용주 목사
증경총회장



폐회기도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사회
신재영 목사
총무



대표기도
이인규 목사
안산시흥지교회장

이어 재무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영희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결의 및 안건 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전도 사임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은퇴 보고, 교역자소천 보고 건과 67차 총회 지방회장 실행위원회에 정의성 목사로 변경인준되었다.

가타사항으로 2019년도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졸업예배, 2019년도 예하성 사바신학연구원 졸업예배, 총회목회대학원 2018년도 하반기 계절학기가 실시됨을 알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임원배석



세계AG 선교위원회 지도자 포럼 및 5회 선교대회

선교활동의 극대화,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 실현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회 지도자 포럼 및 5회 선교대회가 지난 10월 17일(수)부터 21일(주일)까지 5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려 세계하나님의성회의 조직적인 선교활동의 극대화를 위해,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 실현을 위해 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선교지도자 포럼과 5회 선교대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유럽에서 개최된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다루는 시간이었다. (보내는 자와 가는 자, 미전도 종족 등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등에 관하여)

이번 선교지도자 포럼에는 88개국 300명 정도가

포럼에 참석하였으며 5회 선교대회는 90개국에서 1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치러졌다. 특별히 선교대회에서는 매시간 말씀을 통한 도전이 이어졌다. 강사로서는 아사 갈린(방글라데시), 조지 우드(미국, 세계하나님의성회 총재), 손 갈리(미국, 하나님의성회 총회장)가 나섰다. 그리고 난민 정책과 이를 위한 선교 사제, 새로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들의 사례 발표들이 있었으며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 등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또한,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회에서는 '보냄과 비전 선교'라는 2018년 WAGF 리포트를 발표하여 세계하나님의성회 소속 총회와 교회들의 선교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현재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는 총 162개 나라 총회 중 102개국에서 107개의 프로그램(선교사 훈련 및 선교사 지원 등)이 진행되

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세계하나님의성회 나라 총회에 63%에 해당 되는 것임이 보고되었다.

이번 선교대회는 2020년 3월 19일-2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68회 세계하나님의성회 총회(주제: 'Unlimited')를 안내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선교 포럼 및 선교대회에 참석한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세계하나님의성회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총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교단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각 나라의 하나님의성회 교단에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협력하자는 요청을 받고 교단 총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각 나라의 하나님의성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푸르초장은
마음의
시냇물

‘버려야 할 근성(根性)과
가져야 할 근성(根性)’

조용목 목사

“너희는 또 기업에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그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민 34:18,19)

근성은 뿌리 깊이 박힌 성질을 의미하며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성은 타고난 성질에서 비롯하지만 본받고 배우고 노력하므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격 가운데 부정적인 근성이 있으면 뿌리 뽑도록 하고, 좋은 근성이 있으면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근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바닷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응답하셔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무역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내려오니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만나”는 불만과 불평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옮겨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섞여 사는 무리를 “중대한 잡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충족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버리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이런 잡종 근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노하시어 애굽에서 나올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둘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근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은 내면 근성을 배격하고 좋은 근성을 배양하는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경계를 알려 주시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임무를 수행할 각 지파의 대표자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나스 족속에 속한 잡종 출신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지명되었다는 것은 놀랍고 특이한 일입니다. 갈렙은 잡종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 이후에는 그의 사교방식과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들까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갈렙의 근성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말했습니다. 요새화된 성읍이나 장대한 적들로 인해 주눅 들지 않았고, 다수의 정탐꾼에게 기죽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항상 선두에 나서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기골이 장대한 아나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맡아서 그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찾아서 누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보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는 희생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 비록 그나스 족속 출신이었지만 그에게서 잡종의 근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신앙적 근성이 있는 것을 보시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게 하였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막중한을 망각하고 세상을 동경하는 것,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노에 근성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갈렙이 보여준 신앙적 근성입니다. 여러분은 잡종의 근성은 철저히 뿌리 뽑고 신앙적 근성은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해교단행위자 제명, 교단 제적 및 경력 삭제

2018 교단 정책위원회 모임 가져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임용재 목사)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11월 8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정전에서 모임을 갖고 해교단 행위자들의 제명과 더불어 교단경력 삭제제를 비롯 제적처리할 것을 동의하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의 WCC 성명과 관련하여 앞뒤 다른 행동으로 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각종 회부를 처리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임종달 목사의 대표기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종달 목사는 기도에서 교단의 발전과 지방화, 신학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2018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총회를 잘 받들기 위해 모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했다.

조용목 목사는 요 10:1-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뒤 “지도자의 행보의 방향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지도자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지켜 행할 것”을 역설하고 위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해교단 행위자들의 제명과 더불어 교단 제적과 경력 삭제와 관련한 내용을 통과시켰다



“언론과 종교의 자유, 왜곡·훼손 말라”

교회언론회, 동반연 등 40여 시민단체 범국민대회 개최

‘종교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지난 11월 1일(목)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참여단체와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연사로 나선 안용운 목사는 “한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국민으로서 누리길 원한다.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세계 최악의 인권 박해 국가인 북한 정권과 비슷하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는 것 아니냐. 한법까지 개정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했나? 현 정권도 국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언론의 자유를 왜곡,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편향적 보도 행태에 심히 우려한다”며 “특히 순수 기독교 선교단체를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매도하는 정치적 공격을 심각한 종교 탄압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좌파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 사회를 뒤집어엎고 여론이 법을 좌지우지 하는 위험천만한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간다”며 “기독교를 탄압하고 언론은 통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통제하려는 간교한 책동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엔 KBS공영노조, 동성애동

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한국교회언론회,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강사회를위한 국민연대(건사연), 비른군인권연구소, 국민감시단, 비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 역사지킴,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연대자 유민주국민연합, 민족사랑운동본부, 국민을 위한대안, 한세협, 선한이웃봉사단, 한법을사랑하는국민연합, 신의한수, 뉴스티운, 늘푸른 나무와숲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우려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14년만에 스스로 뒤집었다.

이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최근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으로써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해 온 판례를

한때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

이로 인한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필요 없어지는가?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때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한지 심사해야하고, 성장과정과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참으로 법 집행의 최고기관인 대법관들의 입에서 어찌 그리 애매모호한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국민들은 저마다 귀를 의심할 것이다.

내가 양심상 또는 종교적 신념이 있어 군대 안가겠다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강제하라는 것인가 말이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번 주문은 그들도 앞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CTS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예배

CTS기독교TV 신임 림형석·이승희 목사

1996년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으로써는 국내 최초로 개국한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난 11월 6일(화) 서울 노량진동 CTS아트홀에서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22대 공동대표이사로 림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와 이승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가 새롭게 취임했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병구 목사는 20대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섬기고 있다.

지난 한해 CTS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최기학 목사와 전계현 목사는 “세계 방방곡곡 CTS에서 송출하는 복음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며 CTS가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더 활기차게 나아가도록 기도해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새로 취임한 신임 CTS 공동대표이사 림형석 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

고 모든 교회와 교단이 연합하여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CTS를 통해 그 사역들이 함꼐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승희 목사는 “순수복음방송 CTS의 가치를 위해, 이 혼란한 사회가 새로 위지도록 함께 더불어 섬기며, 기도하고, 모든 교단의 역량을 모으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CTS의 사역을 격려해주시고 큰 힘이 돼주신 최기학, 전계현 21대 공동대표이사께 임직원 모두의 진심을 담아 감사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CTS가 순수복음방송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2020년 25주년을 향해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쳐나가는 선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CTS의 든든한 동역자로 서주신 림형석, 이승희 22대 공동대표이사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아시아기독병원협회 제23차 연례대회 성료

스와질랜드 에스와티니 의대설립 지원 뜻 모아

아시아기독병원협회(회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ACHA) 2018년도 총회 및 제23차 연례대회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명지병원 등지에서 아시아기독병원협회 의료선교의 새로운 지평(The New Horizon of Medical Mission in ACHA)이란 주제로 열렸다.

한국을 비롯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 6개국 기독교 병원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연례대회에서는 스와질랜드 에스와티니에 기독교의 대학을 설립하는데 각국이 적극 협력기로 했다.

이번 총회는 이왕준 아시아기독병원협회장의 개막연설과 개막 예배를 시작으로



한국YMCA 안재용 이사장의 ‘평화의 문화 구축’(Building a Culture of Peace)을 주제로 한 특강, 환영만찬과 이사회 등으로 진행

됐다.

이해 둘째 날에는 명지병원으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연례대회에 돌입했다.

2018 충남 취업페스티벌 성료

나사렛대, 충남에 적을 둔 40세 미만 구직자를 대상으로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는 11월 1일 충청남도, 충남경제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2018 충남 열혈청년 잡다한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충청남도에도 적을 둔 40세 미만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취업페스티벌은 충남 우수기업 40여사가 참여한 기업 현장 면접

부스, 삼성SDI가 진행한 채용설명회 NCS 및 직무특강, 이력서자소서컨설팅, 다채로운 이벤트와 축하공연에 이르기까지 무거운 ‘취업’이란 주제를 즐거운 축제로 풀어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축제에는 40개 기업 외에, 100여 개 교육훈련기관, 30여 개 취업지원기관 등이

참석했고, 나사렛대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구직청년 2,000여 명이 방방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나사렛대학교 김우리나 학생(4년,국제경영)은 “기업 현장면접만 생각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직무강의, 다양한 이벤트까지 재미있는 축제 같았다”며 “이력서자소서컨설팅 도움으로 취업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충남도와 공동 진행한 유현배 취업업학생처장은 “청년 취업난이 극심하지만, 나사렛대의 교내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교외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 대학과 지역을 연계하는 취업특성화 대학의 역할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크리스찬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

500여 노숙형제들과 CLA 12기 사랑 나눔 수요예배

크리스찬리더스아카데미(원장 장현일 목사, CLA)가 CLA총동분회(회장 오수철 장로)와 함께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역 해돋는 마을 신생교회(김원일 목사)에서 “서울역 노숙형제와 함께 드리는 CLA 12기 사랑 나눔 수요예배”를 드리고 500여 노숙형제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사랑나눔사역을 진행했다.

“크리스찬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로 모인 CLA 12기(회장 유범렬 장로) 회원들은 총동분회 원우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노숙 형제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정성껏 대접했다.

사랑나눔사역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위령 집사(CLA12기 총무)의 인도로 최준용 장로(CLA12기 고분)의 대표기도, 양한연 교수



(CLA12기)의 봉헌기도, 장현일 목사(생명나눔교회, CLA 원장)의 시편 2편 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장 목사는 “오직 여호와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며 “현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일어서자”고 말씀을 전했다.

‘2018 Global 6k for Water’ 성료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 위해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11월 3일(토) 서울 독서한강공원에서 기부 마라톤 ‘2018 Global 6k for Water’ 행사를 가졌다.

‘Hero Wanted’라는 컨셉으로 마련된

‘Global 6k for Water’는 월드비전이 빈곤국가에서 진행되는 식수위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마라톤 행사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2018년에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3개국에서 4만8천명이

참가해 실제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달렸다.

행사에는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가수 투피엠(TPM)의 준호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 전원은 식수사업 혜택을 받게 되는 아프리카 아동의 사진이 프린팅된 배너를 부착하고 달렸다.

참가자 중 일부는 아프리카 아동의 어려움을 공감하기 위해 실제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운반할 때 쓰는 20리터 제리칸(플라스틱 휘발유 통)을 들고 달리는 이벤트에 참여하였다. 특별히 이번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반 마라톤에서는 구간마다 제공하는 식수를 제공하는 대신 아프리카 아동처럼 물병, 주전자, 약수통 등 자신의 물통에 물을 담아 6km를 뛰었다.



한교연, 서울역 신생교회서 ‘2018 김장나누기 대축제’

김장김치 노숙인, 미혼모 청소년 독거노인시설, 탈북민가정 등에 전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이 지난 11월 8일 서울역 노숙인 급식센터인 신생교회 해돋는마을(김원일목사)에서 사회빈곤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65,000kg의 김장을 담가 현장에서 전달하며 초겨울의 차가운 날씨를 훈훈하게 달였다.

한기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주관한 “2018 사랑의 김장나누기 대축제” 행사에는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탈북민 봉사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해 4시간여 동안 총 65,000kg의 김장을 담갔으며, 이를 10kg 650박스에 포장해 현장에서 7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별히 이번 김장은 탈북민 여성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더 어려운 이웃을 위



한 봉사에 팔을 걷어부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서울역 신생교회(김원일 목사) 노숙자 급식소인 해돋는마을,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꿈나무(원장 박미자), 독거노인 쉼터교회(김효종 목사) 청소년 가정정보시설 선사공동체(김연수 집사), 노인

복지시설 신타치저지(이승진 목사), 무의탁노인보호 살림교회(최이론 목사), 탈북민 30가정 등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교회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한기연이 해마다 11월초에 진행해 온 김장나눔대축제는 올해로 4회째로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 해 김장나눔 행사를 견학했던 탈북민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30여 명이 참여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 구슬땀을 흘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개회예배는 여성위 서기 공선영 전도사의 사회로 성경공 목사(평택열린교회)의 기도, 이해정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겨울이 오기 전에”(딤후 4:19-21)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10월 정기월례회 및 여수에서 야유회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병호 목사)는 지난 10월 29일(월) 오전 11시 여수에서 월례회 및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바울 목사(순복음진리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조영진 목사(순복음부흥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 직전회장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창 49: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에 이어 회계 최금자 목사(온누리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 총무 김바울 목사의 광고, 지방회 직전회장 최은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통과, 전 회의록 낭독 및 수정, 각종 보고사항을 전하고, 안건 및 기타 사항에 대해 토의 하고, 오는 12월 17일

월례회 및 송년회는 순복음베전교회(담임 안재봉 목사)에서 하기로 했다.

월례회를 마친 후 회원들은 여수 일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만끽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여수 순천만습지와 여수 일대를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경기지방회 회원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서 하나님 찬양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흥현철 목사)는 지난 10월 25일(목) 영남알프스 배내골에서 가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재무회계 박영욱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흥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흥 목사는 창 1:3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역자'라는 제목



의 설교를 통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

더라고 했습니다."라며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하였다. 설교 후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지방회원들은 식사를 하고 영남알프스 배내골 파래소 폭포와 얼음굴 호박소를 둘러보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를 타고 신에 올라가 정상에서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단합대회를 가졌다.

2018 대구경북지방회 제직세미나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10월 25일(목) 오전 10시 울진 갈릴리온 소망교회에서 대구경북지방회의 각 교회 제직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8년 대구경북지방회 제직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제직세미나는 지방회 총무 정진화 목사(대전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도명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

표기도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증경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는 '성도의 교회 생활'이란 제목으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였고,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는 '교회의 재정'이란 제목으로 올바른 십일조 생활과 감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후 점심시간에는 갈릴리온소망교회의 협찬으로 준비된 추어탕과 고대탕으로 식사를 하고 제직세미나를 이어갔다.

증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주산양교회)는 '성도와 제사'란 제목으로 유교, 불교, 천주교의 우상숭배에 관하여 잘못된 패배를 정리하여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하였고,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는 '전도생활'이란 제목으로 실제의 전도 현장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간증적으로 말씀을 전하여 참석자 모두가 시간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세미나가 되었다.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를 위하여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로 제직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기 위해 지방회 강사 목사들의 진심어린 노고와 헌신이 담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세미나 시간이 되었으며, 갈릴리온소망교회 성도들이 준비해 준 다과를 쉬는 시간마다 즐기며 영육이 즐거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의 감사 인사와 축도와 기념촬영으로 '2018년 대구경북지방회 제직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음 세미나를 기약하면서 아쉬운 발길을 각 교회로 돌렸다.



천안 태조산에서 야유회 갖고 교제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일선 목사)는 지난 10월 30일(화) 천안 태조산에서 야유회를 갖고 회원 간의 친목을 다졌다.

이날 회원들은 야유회에 앞서 모든 행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임원회에서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산행을 시작했다. 일부 회원은 태조봉 정상까지 오르고, 다른 회원들은 산책을 하기도 하며, 도토리 쪼는 재미에 빠지기도 했다.

태조산은 천안(龜山)으로 산 이름은 고려 태조가 이곳에서 군사를 양성했다는



설에서 유래하였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완만한 산세로 천안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산행 코스는 3~4개가 있는데, 대체로 2

시간 이내의 짧은 산행이어서 산책이나 가족 산행으로 알맞다. 모든 산행이 끝나고 회원들은 근처 들꽃향정식에서 즐거운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참사랑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서울강남지방회

서울강남지방회(회장 우성현 목사) 참사랑교회(담임 김종열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취임예배가 지난 10월 28일(주일) 오후 2시 동교회 대성전에서 드려져 참사랑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것과 더욱 열심히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이성호 목사(둘레개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임혜선 집사, 참사랑교회 그레이스 찬양단의 찬양에 이어 지방회 서기 이현옥 목사(순복음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우성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에서 우성현 목사는 딤후 2:1-7 말씀을 본문으로 '충성된 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원로목사의 그동안의 사역의 수고와 맡겨

진지의 충성을 취임목사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였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지방회장의 진행으로 김종열 원로목사 추대 경과보고 및 교우들의 교인선서, 지방회장의 공포 및 폐가 증명되었다.

3부는 지방회장 우성현 목사의 진행으로 임종혁 담임목사 취임식이 진행되었으며 담임목사 서약, 교인서약과 공포, 기도애 이어 폐가 증명되었다.

축사를 담당한 총회장 임용재 목사는 원로목사의 23년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과 주님께서 주신 사람으로 이루어졌음을, 담임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여 칭찬 받는 종이 되길 축복했다.

이어 원로목사, 담임목사의 담사와 지방회장 우성현목사의 축도로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예배를 축복 속에서 은혜롭게 마쳤다.

예배 후 참사랑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애잔과 교제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사명감과 열정’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

교단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및 연수교육세미나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11월 8일(목)~9일(금) 1박 2일 동안 경기도 포천시 산정리순복음교회(담임 임용재 목사) 교단총회장에서 모임을 갖고 가을산행기도회 및 부흥사 연수교육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김건수 목사(부흥사회 상임총무)는 막 1:21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물가시는 사역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부흥사들의 사역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이끌릴 때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정리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흥사회 연수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교단 총회장 임용재 목사는 시 39:1~7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①사역의 열매를 맺으라 ②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③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라 ④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선포하

라 ⑤환상 하나님 편에서 있으라라고 역설했다. 이튿날 신재영 목사(부흥사회 회장)는 시 13:8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말한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신다고 선포했다.

이어서 부흥사들은 경기도 포천소재 명성산에 올라 ①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②한국교회와 다음세대들을 위하여 ③교단발전과 정책위원장을 위하여 ④총회장과 임원 및 교단교회를 위하여 ⑤교단 부흥사회의 역동적인 사역과 부흥사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⑥WCC를 비롯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확산저지와 동성애, 동성혼 허용 및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입법 저지를 위하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하산 후 산정리순복음교회로부터 포천 이동소갈비로 귀한 대접과 섬김을 받고

서 부흥사들도 더욱더 섬기는 사역자가 될 것을 결심하며 따뜻한 교제와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부흥사회 가을산행기도회 및 연수교육세미나를 통해서 국가의 정치와 경제 및 안보적 상황이 혼란과 무질서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한 영적으로도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의해 파괴되고 있는 영적환경을 회복시켜 우리의 신앙 환경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교단과 소속교회들의 역동적인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각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고자 다짐하였으며 우리 교단의 확고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줌으로써 수준 높은 부흥사로서의 강력한 사명감과 열정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생명의 말씀



신재영 목사

· 예하성 부흥사회장
· 새김전교회 담임
· 김천시 기독교연합회 중경회장

오늘날의 세상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하며 진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소중한 것을 외면해버립니다. 또한 아무리 그렇게 말해주고 일러 주어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성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솔직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로 태워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믿음(벧전 1:7)을 가지고 살아 가이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육의 생각, 육의 경험, 육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고정된 믿음은 아닌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들리는 예배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에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 주신다고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 사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빛도 섬에 유배되어서 광산의 중노동형에 처해있던 사도요한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요한은 주의 날이 되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의 날, 즉 주일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신 거룩한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하여 나팔 같은 큰 음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며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늘을 치는 것이 아니며, 향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 금대접에 담기며 너무 귀해서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에베레마 29장 12~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의 귀한 기도에는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셋째로, 온전한 심일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심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였고 그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바로 성공이며, 형통이고 장수하는 것이고 풍요로움이며, 확장의 번영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줄름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 3:9-10)

넷째로, 성령충만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1장 10절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요한의 신앙은 성령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고 나팔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신앙에서 실족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것이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찾아 올 때에 그 신앙이 실족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탄저는 돌에 맞아서 온 몸이 파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니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가 스테반은 열린 하늘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에도 하늘 문이 열려야 하며,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려면 첫째가 예배생활이 확실해야 하며, 둘째는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셋째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 정

한동대, 포항 11.15 지진 1주년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는 지난 11월 15일(목) 교내 효암 별관에서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1주년을 맞아 ‘11.15 지진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번 감사예배는 지난해 지진 극복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한동인의 하나됨’, ‘후원자분들에 대한 감사’ 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회법학회, ‘CLTA 아카데미’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지난 11월 12일(월)~13일(화) 서울 강남구 남서울중앙교회(담임 여찬근 목사)에서 ‘교회법·세무 아카데미’를 열었다. 강사로는 서한재 중앙대 명예교수, 송기영 장우권 변호사,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총무 박요셉 목사, 삼도세무법인 대표 이석규 세무사 등이 나섰다.

기독교직자 선교대회



한국기독교공직자 선교연합회(공선연·회장 진승호)는 오는 11월 24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세종제일교회에서 ‘청년 20주년 2018 기독교공직자 선교대회’를 연다. 진승호 회장은 “이 대회는 기독교공직자의 사명을 정립하고 공직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가정예배’ 주제 콘퍼런스



한국아이이프씨제이(IFCI Korea, 이사장 지형은 목사)는 오는 11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 2층 성산홀에서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8년 가을 콘퍼런스’를 연다. 이 콘퍼런스의 부제는 ‘전통의 무물에서 길어올린 신앙 전승의 지혜’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방의 의무는 뒷전인 대법원 판결 특정 종교의 신념이 양심을 대표하나?

1일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 합의체에서는 소위 양심적(특정 종교 신념에 따른)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우리 법체계가 50년간 지속해온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깨는 것이며, 지난 2004년 대법원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14년 만에 뒤집힌 판결이다.

이번의 결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 ‘대체복무제’ 등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불과 3개월 전에 헌법재판소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대하여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또 남북의 대치 상황과(지금도 결코 평화가 정착된 것이 아닌) 우리 군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률이 가진 공공성과 공익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그리고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특정종교인이 99%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최근 대법관들의 성향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인다. 이렇듯 최고 법률기관(헌법재판소, 대법원) 사이에서도 결정이 다르고, 법 해석이 다르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국방의 의무는 누가 책임지게 되는가?

이날 결정에서,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은 소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국민적 정서요, 감정이라고 본다.

아무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위하여,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버리게

하고, 법률로써,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 시킨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 ‘양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지를 가려내고 막는 것과, 대다수의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대법원의 결정이 너무 빨리 앞서 가므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9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8. 8. 31(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8. 9. 06(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8. 9. 2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8. 8. 31(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9. 2. 11(월)~1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웅재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목양강좌 / 성경으로 현대신학사상 분별하기 ❶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으로 간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학의 변질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말하는데, 많은 현대신학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고백해온 하나님의 진리들을 버리고 표류하고 있다.

현대신학 사상들을 통틀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른다. 자유주의신학은 한미디로 이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역사적 대교단들의 신학교들은 이런 현대신학 사상들을 포용하거나 현대신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현대신학에 대해 논하는 까닭은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단적 사상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단을 분별하고 배척하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사탄은 교회들로 하여금 현대신학을 받아들이게 하여 신학을 변질시켜 마침내 교회 전체를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교묘하고 치밀한 꾀계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신학이 얼마나 이단적이며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인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

1. 현대신학 사상 개론

현대의 신학적 사상과 운동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철학적 영향력을 받아 이루어졌다.

1)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데, 중세 말에 유럽에서 일어난 “지성적 대각성”을 가리킨다. 이 운동을 문예부흥(文藝復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기는 일반적으로 1350년부터 1650년까지로 본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종교적 집단 생활관을 무너뜨리고, 근대의 세속적 개인생활관을 정립시켰다. ---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대신 인간의 영광을 강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 대신에 인간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발달하였다. 인간과 그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지성이 더 신뢰를 받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대신 인간이 우주의 초점이 되었다.

르네상스로 인하여 성경과 초자연적인 일들에 관한 회의가 일어났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은 생명의 수수께끼를 이해하는데 있어 이성과 과학의 능력을 역설하였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글이 성경의 기적과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믿음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계몽된 철학”이 초자연적 사실들을 부인하는 “종교적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2) 계몽주의

존 로크(1632년 -1704년)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 온다고 가르침으로써 주관주의를 주장하였다. 로크는 인간이 여러 감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부의 환경을 인식하고, 성질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가르쳤다.

로크는 신적인 계시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이성과 모순되는 기독교 신앙 교리들을 배척하였다. (신학적 자유주의 및 신정통주의의 기초는 존 로크의 이성적, 경험적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지 버클리(1685년-1753년)는 “존재하는 것은 감각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존 로크의 감각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또한 “사물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 존재한다. 경험되는 성질들이 그 사물의 본질을 형성한다”라고 선포하였다. 조지 버클리에 의하면, “모든 지식은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는 특별히지를 부인하였다

데이비드 흄(1711년 -1776년)은 “회의론자”로서 존 로크와 조지 버클리의 사상을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영적 실체들을 부인하였다. 데이비드 흄은 성경의 기적들을 부인하면서, 객관적 진리를 아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모든 진리를 증명하는 기초로서 이성과 과학적 방법이 강조됨과 아울러 불가지론과 회의론이 판을 쳤다.

이 모든 요소들은 성경과 초자연적 사실들을 배척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 불가지론 (不可知論 agnosticism)

사물의 본질이나 실재(實在) 그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문제를 거부하는 입장.

※ 회의론 (懷疑論 skepticism)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이므로 인간의 인식능력으로서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얻을 수 없다고 보는 학설.

3) 관념론

관념론이란 실체가 “물리적 세계”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안에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철학체계이다. 모든 실체의 뒤에는 신성한 마음이 있으며, 그 마음이 세계를 선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1724년-1804년)는 인간의 신(神) 관

념이 이상에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칸트는 신의 존재 증명을 공격하며, 그 증명의 정당성을 부인하였다.

칸트에 의하면, 지식은 경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시험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이같이 하여 칸트는 합리주의(인간의 이성에 의존하는 철학체계)와 경험주의(과학적 방법으로 사물을 검증하는 체계)를 결합하였다. 이러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칸트는 “종교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창시자”로 불리기도 한다. 칸트는 기독교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높은 윤리적 이상을 지닌 선한 선생으로 간주하였다.

기독교를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하나의 윤리 체계로 본 칸트의 사상은 후대의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게오르크 헤겔(1770년-1831년)은 독일의 관념론자로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오직 마음만이 실재한다. 다른 모든 것은 마음의 표현에 불과하다 ----- 모든 실체는 절대자 곧 신(神)의 표현이다. 모든 실재(實在)하는 것은 신성한 마음의 표현이며, 따라서 실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실재한다. 헤겔은 그의 변증법적 개념에 따라 신(神)이 역사 가운데서 일한다고 보았다.

※ 변증법 : 정론(正論)은 반론(反論)이 일어나게 하고, 마침내 그 둘을 종합하는 합론(合論)이 도출되며 역사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합론이 정론이 되면 다시 그에 대한 반론이 일어나므로 이 과정은 끝없이 계속된다.

따라서 헤겔은 기독교를 하나의 계시된 종교로 보지 않고, 단순히 종교와 문화가 발전하는 가운데 생겨난 합론으로 본다. 헤겔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기독교는 결국 더 높은 형태의 지식, 즉 사변적 철학으로 진화하게 된다.

관념론자인 헤겔은 기독교 교리들을 단순히 상징으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용어(用語)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2.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는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합리주의 및 경험주의로 말미암아 생겨난 신학의 한 형태이다. 자유주의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발견들에 최우선권을 둔다. 무엇이든 과학과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배척해 버린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기적이나 초자연적 사실들에 관련된 전통적 기독교 신앙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컨대,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육체적 부활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전통적 자유주의

(1)전통적 자유주의의 역사적 발전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1763-1834)는 독일 개신교 신학자로서 철학의 냉랭한 합리주의에 반발하여 감정적 기초위에서 “느낌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쉐라이어마허는 종교란 철학적 논리적임이나 교리적 선포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전통적 기독교 교리들을 배척하였다).

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감정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쉐라이어마허는 윤리적 종교를 강조하였는데, 그는 종교를 “절대적 의존감” 혹은 “하나님의 의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죄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덕적 위반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인간이 우주와 그의 동료 인간들로부터 소외되어 스스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죄가 발생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쉐라이어마허는 동정녀 탄생, 대속, 그리스도

의 신성과 같은 전통적 교리들을 거부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가 이성적 모범이 되시고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구세주라고 가르쳤다. 신자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단체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거듭남(예수님의 하나님 의식)을 체험하게 된다.

알브레히트 리츨(1822-1889)은 독일 개신교 출신의 신학자로서 종교가 지나는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이 질문이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면, 이는 이론적 질문이 되어버린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이기심과 두려움과 자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츨은 원죄, 성육신,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기적 등 중요한 전통적 교리들을 배척하였다.

리츨은 사실성(역사적 사건인가, 아닌가?)과 가처성(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으로 성경의 모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학의 변질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말하는데, 많은 현대신학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고백해온 하나님의 진리들을 버리고 표류하고 있다.”

든 것을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사실적 예수와 가처적 예수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리츨의 신학에 의하면, 신자들의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가처적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탐욕에 대한 희생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의 모본으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한 삶을 살도록 북돋우는 도덕적 의미만 가질 뿐이다.

분명히 리츨은 후에 생겨나게 되는 히스토리(historie, 역사적 시간)와 게쉬히테(geschichte, 이야기 또는 신화)의 이분법적 구조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도덕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사회복음”의 기초를 놓았다고 간주된다.

아돌프 폰 하르낙(1851-1930). 이 독일 신학자는 리츨의 제자로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참 핵심이 아닌 헬라사상들이 복음에 끼여들어 옴으로써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폰 하르낙은 예수님이 스스로 신성을 주장하신 적이 없다고 가르쳤으며 기적들을 부인하였다. 또한, 그는 바울이 예수의 단순한 종교를 타락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예수에 관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종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의 겹집을 벗겨내고 진리의 알갱이, 즉 핵심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폰 하르낙의 사상에서 “루돌프 볼트만”의 비신화화 개념의 씨를 엿볼 수 있다.

(2) 성경 비평론

신약 : 바우르(F.C. Baur, 1792-1890)는 전통적 기독교 교리들을 부인하고 성경에 헤겔의 변증법적 철학(정-반-합 철학)을 적용함으로써 역사비평적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바우르의 제자인 다비드 스트라우스(1808-1874)는 성경 기록의 역사적 정확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추종자들이 성경을 미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성경이 “신화”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는데, 이 개념은 헤겔의 철학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신약을 재해석하면서, 스트라우스는 예수님이 인류 안에 있는 “절대정신”의 상징이라고 가르쳤다. 참신인(God-man)은 예수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인류였다.

구약 : 구약비평에서 “문서가설”이란 모세의 오경이 전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약5세기에 걸쳐 여러 다른 문서들이 편집된 결과라고 보는 가설이다. 이 고등비평학에 의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일일이 분석하여 기록 연대를 후대로 돌리곤 하였다. 예컨대, 모회서신과 같은 신약 문헌들은 바울의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호레이스 부쉬넬(1802-1876). 이 미국 목사는 쉐라이어마허가 유럽에서 한 일을 미국에서 하였다. 그는 “미국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다.

부쉬넬은 원죄의 교리를 부인하였다. 모든 어린이는 선하게 태어나서 율바르게만 양육하면 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부쉬넬은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본적 의미만을 지닌다고 여겼다.

윌터 로센부쉬(1861-1918). 미국 침례교회 목사로서 사회복음을 주장하여 “사회복음의 아버지”로 불린다. 로센부쉬의 신학은 그가 뉴욕에서 사역하면서 이민자들의 고생, 노동 착취, 빈민들의 고생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등을 체험하면서 생겨났다.

그는 자본주의 체계를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범신론에 가까워졌다

(하나님은 만유이시다, God is every thing).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는 자연 안에서 역사하시며, 진화적 과정 안에서 역사하신다. 따라서 기적의 필요성이 없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을 거부하였다.

인간론 : 자유주의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신적계시를 거부한다. 인간의 이성이 성경이나 전통적 교리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성경은 이성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성경이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어있으면 그 이야기들은 무시해 버린다.

그러하여 성경의 기적들을 거부하였다.

신학은 실제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에서는 종교적 체험과 결합된 인간의 이성이 신적계시와 성경적 권위를 대체해 버린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 및 전통적 교리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회의의 대상이 된다. 전통적 신학은 고정적 체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주의에서는 끊임없는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성의 시대와 현대과학의 도래를 기회로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사람들의 구미에 맞도록 바꾸려고 하였다. 구원론 :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개인적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다.

낙관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음”이 그 메시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왕국은 미래의 초자연적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수의 원칙과 윤리를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이다.

2) 신자유주의

제1차 대전의 결과, 옛 노선의 자유주의(전통적 자유주의)는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그리하여 새로운 자유주의가 탄생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현실주의 신학”이라고 부른다.

구자유주의자들에 비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해 더 낮은 평가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높은 평가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지만, 동정녀 탄생과 결부 지어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대속 속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교회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

신자유주의는 구자유주의를 새로이 단정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핵심적인 면에서, 신자유주의는 구자유주의의 본질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자유주의신학에 이어 나타난 현대신학의 사조로서 신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신정통주의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신정통주의 신학

1) 신정통주의의 개요

신정통주의는 새로운 신학이긴 하지만, 정통주의라 할 수 없다.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다.

제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죄를 부인하고 인간의 기본적 선을 바탕으로 하였던 자유주의 신학은 그 오류를 크게 드러내고 말았다. 칼 바르트(1886-1968)는 그때까지 몸담고 있던 자유주의 사상을 버리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다.

1919년 출판된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는 자유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신정통주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 신정통주의 신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사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1813-1855)는 경험을 강조하는 신학을 펼쳐 후대의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이르기론,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헌신을 포함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역설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키에르케고르의 신학(흔히 “절망의 신학”이라 불림)은 개인의 체험을 실체성의 기준으로 삼는 실존주의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의 견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은 진실이다.

이는 믿음의 어두운 도야도 아니며, 미지의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종교적 체험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키에르케고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바르트는 이르기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므로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은 오직 체험을 통해 주관적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제67차 총회 제7회 임원회

오직 말씀에 의지해 바른 길로 가야

교단 총회(총회장 임용재 목사) 제67차 총회 제7회 임원회가 지난 11월 5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에서 열려 안보와 경제, 이슬람의 집요한 침투, NAP차별금지 독소조항 폐기, 공교육의 위기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복음 전파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기도해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이은승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이은승 목사의 기도,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설교 및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임용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의 정 임용재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보고사항으로 인천지방법회 조정 건이



보고되어 면밀한 토의과정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어 재무 이은승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조병희 목사의 지출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 임 청원, 교역자가임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복귀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

전출임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은퇴 보고 등이 결의 및 토의 되었다.

기타사항으로 2019년도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졸업예배, 2019년도 예하성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예배, 총회목회대학원 2018년도 하반기 계절학기가 실시됨을 알리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NAP독소조항폐지 민족복음화 위해 기도

민족복음화와 국가안보를 위한 조찬기도회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10월 25일(토) 오전 7시 신광교회(담임 이두영 목사)에서 민족복음화와 지역발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갖고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이슬람침투 저지를 위해, 성평등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공동회장 온재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고분 김소운 목사의 설교, 본부장 이두영 감독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에서 김소운 목사는 요 14:25-31 말씀을 본문으로 '평화'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진정한 평화는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때를 위하여 민족복음화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2부 보고회는 조이식 목사(상임회장)의 사



회로 자원위원인 이명수 국회의원의 국정활동보고, 장기승 시의원의 시정활동보고,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장정 온재전 목사와 바른인권위원회 위원장 장현원 목사(부회장) 상황보고 등이 이어졌다.

3부 기도회에서는 본부장 임기석 목사의 사회로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끼연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 반대를 위하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자원위원 박차영 목사, 자원위원 이광로 목사, 부회장 장현원 목사가 각각 주

이어서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예하성 증경 총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매일 조찬기도회로 모여 기도하여주시는 회원들과 국정 및 시정 현안을 보고하여주시는 이명수 국회의원과 장기승 시의원, 연합사업보고를 위하여 힘쓰는 연합회 대표회장 온재전 목사 등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격려한 뒤 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부흥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임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목회 다짐

경기중앙지방법회

경기중앙지방법회(회장 이은승 목사)는 지난 10월 16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예본교회(담임 김연옥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순서로 총무 윤두환 목사(행평 순복음교회)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서는 순병진 목사(하나교회)의 기도, 지방회 증경 회장 윤정현 목사(송전교회)의 설교가 이어졌다.

윤 목사는 마 1:18-25 말씀을 본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2000여 년 전 율법주의 사회 속에서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소문과 함께 부정적인 말들이 만연한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심사숙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



르는 가운데 인내하며 순종함으로써 요셉과 같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울러 지방회 분열의 아픔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회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종이 될 것을 함께 다짐하였다.

이어서 회계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

(은혜와승리교회)의 은혜로운 오가리나 연주 후 윤정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이은승 목사의 사회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모든 회원들은 아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순복음예본교회에서 마련한 오리누룻지백숙으로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였다.

월례회 갖고 지방회 업무 처리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11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순복음목장교회(담임 한승수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박현남 목사의 갈 6:7-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의 설교, 서기 윤준수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서기 윤준수 목사의 회원점명과 총무·서기 보고, 재무 보고에 이어 회계 오세준 목사의 회계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오는 11월 19일(월) 오전 11시 은혜외전리교회 인양성전에서 열릴 정책위원장 세미나 및 기도회에 관하여 통보하고, 하늘샘교회의 교단 가입 및 지방회 가입 소식을

전했다. 월례회를 마친 후 순복음목장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고, 12월에 있을 송년모임과 1월에 있을 월례회를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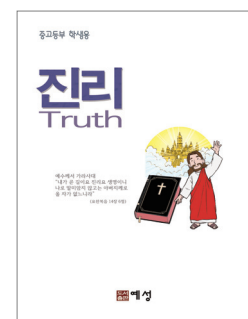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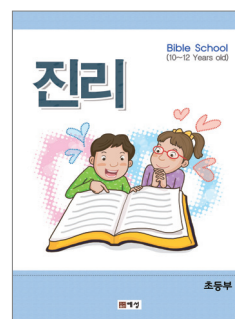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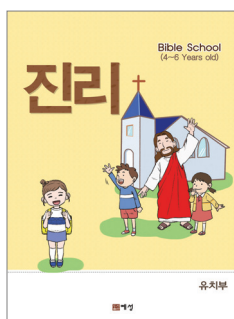
교단공과신청

출판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이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중고등부학생용교사용은 별도로 발간인함 : 3,000원
- ③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④ 성인용 : 5,000원

특징(교회학교 공과)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영어권에서도 사용 가능함



공과신청

- ① Fax: 02)2677-5181
- ② e-mail: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④ 신청마감: 2018년 12월 3일(목)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합니다

문의

전 화: 02)2675-518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양계장건립, 이·미용봉사 등 라오스에서 예수사랑 전해

국제기아대책기구 강릉지회 회장 김용덕 목사 외 11명 라오스 선교지 방문

국제기아대책기구 강릉지회(회장 김용덕 목사, 본부장 지성택, 총무 최승현 목사)는 지난 10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라오스 선교지역을 방문하고 양계장을 지어주는 한편 초등학교에서는 학용품을 전달했으며 이·미용 봉사와 자전거 등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또한, 선교사 가정에는 선교비를 전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위로 격려했다.

라오스 나콩, 비엔티안, 포사누안, 방비엥 등의 지역을 방문한 국제기아대책기구 강릉지회 회장 김용덕 목사를 비롯해 12명의

회원들은 이번 선교비전트립을 위해 1일 찻집, 기대콘서트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나콩교회에 양계장을 지어주고(300만 원) 이 사 개인들이 자신의 경비를 내서 해결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강릉지회 회원들은 기부금으로 선교에 나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선교지를 돌러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교단총회장



임용재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욱 목사 (영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전동엽 목사 (서소영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단 목사 (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제 목사 (진주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임용재 목사 (신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정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사복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재무
황용엽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봉수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전석현 목사 (영강교회)	백영수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선광숙 목사 (현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중앙교회)	최광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마을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영교회)	김봉호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박흥열 목사 (오성사당교회)	성기창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양은혜 목사 (정조교회)	김봉수 목사 (은혜교회)	최남수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혜교회)	권선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김연수 목사 (영동제일교회)	이회숙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정관우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서병석 목사 (가나안성원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정예스더 목사 (예수왕기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KBS 1TV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의 심야토론 논평

과학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기독교 혐오 적대시하는 가짜인권 심각한 우려

청소년기(14~16세)를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 동성애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이
연구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10월 27일 KBS 1TV에서 있었던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의 심야토론에서 과학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혐오 적대시한 일부 토론자들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것은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짜인권을 반대하는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려는 언론과 정부의 노골적인 움직임 중의 하나로 보아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KBS 1TV <언정철의 심야토론>에 출연한 금태섭 의원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왼손잡이와 같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라는 어떠한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왜곡된 주장이다.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하였다는 해머의 연구 결과는 본인 스스로에 의해 이미 반박되었다. 2016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그동안 발표된 200개 이상의 논문을 검토한 후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The New Atlantis, Special report, 2016. 10. "Sexuality, and Gender (Findings from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https://www.thenewatlantis.com/publications/executive-summary~sexuality-and-gender>).

오히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여러 과학적 증거들이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은 동성애가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은 토론회에 앞서 과학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인하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였다. 또 금태섭 의원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왼손잡이의 경우는 동성애와 비교하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예이다. 오른손잡이, 또는 왼손잡이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없으며 사회적 폐해도 없다. 그러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판결한 것처럼,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에이즈 등의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금태섭 의원은 탈동성애 자체를 부인하여 동성애에 관한 왜곡된 사실 인식을 보여주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색해 보면 많은 탈 동성애자들이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며, 많은 탈동성애에 활동을 한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동성애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동성애를 소개하는 다

른 토론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조롱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뉴욕 시리큐스대학 영문학 교수인 로잘리아 버터필드 교수는 한때는 레즈비언이었으나 탈동성애 하여 저술 활동과 반동성애 강의를 하고 있다. 미국에는 탈동성애를 지원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NARTH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and Therapy of Homosexuality)가 1992년에 결성되었으며, 2007년에는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탈 동성애자가 중심이 되어 탈동성애를 지원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있다. 청소년기(14~16세)를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 동성애의 빈도가 다르다는 것이 연구조사에 의해 밝혀졌다(E. O. Laumann, J. H. Gagnon, R. T. Michael, and S.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시골보다는 대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는 대학졸업자가 동성애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동성애가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진중권 교수는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은 아니지만,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확산 경로를 미 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과학적 사실을 공개토론회에서 왜곡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https://www.cdc.gov/niv/group/msm/index.html>)

또 진중권 교수는 시종일관 기독교에 대해 혐오하고 폄하하였으며, 도발적인 적대 발언을 계속하였다. 심지어는 예수의 염세체에 대하여 몰으며 기독교를 조롱하며 기독교인들을 모욕하였다. 스스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모멸하며 혐오하는 태도는 심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진중권 교수가 주장하는 인권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아서 안 되며, 어떠한 폭언과 따돌림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과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흡연자와 마약 중독자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 행위와 마약을 하는 행위가 옹호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동성애는 인종, 피부, 언어 등과 같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과 자유의 영역에 속

한다. 사회적 피해를 주는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유, 성적자기 결정권은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동성애자는 '성적 소수자' 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소수자' 가 될 수는 없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심각한 차별이 없음이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의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3월 사이의 3년 동안에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진정된 모든 사건이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http://news.kmbi.co.kr/article/view.asp?arcid=0923920800&code=23111111&sid1=chr&qp=du1>)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는 동성애자 차별 보호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자신들의 사상적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동성애를 방지하여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함이며,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또한 [양성평등] 사회를 무너뜨리고, 온갖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체제가 되면, 본인들의 정치적 사상적 지지 기반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악한 의도가 숨어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반대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독재사회가 되고, 자기 자녀들에게조차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 그야말로 암울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성평등] 사회로 만들기 위해 언론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려 한다. 또 정치와 사상으로 과학을 이기려고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가기 때문이다. 진리는 결코 탄압으로 꺾을 수 없음을 한국의 지난 역사가 똑똑히 보여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진리 자체는 오히려 탄압에 의해 더 번성하며 탄압하려는 정권을 붕괴시킬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독재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다는 엄중한 진실을 직시하고 어떠한 반민주적인 음모가 있었다면 즉각 포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30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노숙자사역 평생 헌신 /서울역 무료급식 봉사 21년째 최성원 목사

노숙자 사역 감당 중 집에 불, 기도 당부

저는 1946년생으로 올해 나이 74세입니다. 그런데 한 겨울에 보급자리가 없는 신세가 될 형편에 놓여 호소문을 올립니다.

저는 월남 참전 용사로 현재는 용산구 한강대로 14가길 49-7에 63세 된 박관선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전세 7,000만 원 짜리인데 정부의 지원으로 살고 있으며, SH 공사가 가족 주인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11시 50분 경,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차매 초기 한자인 박관선 씨가 혼자 있던 집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장 난 냉장고에서 적은 양의 물이 흘러나와 있었고 그 물이 부엌 바닥에 깔린 장판 속으로 들어간 것을 모르고 전기스위치 코드를 켜는 순간 불꽃이 튀며 50년 된 한옥 집의 나무 기둥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기 차단기가 다 내려가 캄캄한 상태에서 차매 초기 한자인 박관선 씨는 허둥지둥 하였고, 다행히도 곧 용산 소방사에서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그날 새벽에 돌아온 저는 뒤늦게 화재 사실을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족 주인이 화재 소식을 듣고는 이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걱정과 고민이 많아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다가 이 호소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갈 곳이 없어 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SH 공사에서는 울산에 있는 박관선 씨의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중국동포 아내와 두 돌 된 아이가 있는 아들은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박관선 씨는 아들의 형편이 어려워 그동안 13년 간 저와 함께 서로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차매 초기 한자로 집을 자주 나가서 찾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용산경찰서 실종팀에서 받은 위치 추적기도 손목에 채워주었으나 분실되기 일쑤고, 그래서 지금은 손목에 제 전화번호를 문신으로 새겨 넣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돌보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집을 잃게 생겼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4가길 49-7에 시한부로 사는 최성원 목사이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1년간 노숙자 무료급식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10-8062-8282

“교회연합과 복음 전파위해 헌신할 것”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이재희 목사 신임 회장으로 추대

성남시기독교연합회(회장 이재희 목사)는 지난 11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햇빛교회(담임목사 이재희)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희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재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송상면 목사의 기도, 유정기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요진 목사가 8월의 미학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이어졌다.

설교 후 이정원 목사(증경회장), 장영하 권사(교무위원장) 등은 축사와 격려사를 하며 성남시기독교연합회의 발전을 기원했고 예배는 강정식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이재희 목사는 증경 회장들을 겸손히 섬기고 성남시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헌신할 것을 밝히며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 된 모습으로 복음 전파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의 자격과 관련한 회칙이 개정됐다.

그 결과, 담임목사뿐 아니라 성남시기독교연합회에 소속한 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회원권을 갖게 됐다.

신임회장 이재희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소속된 예정활동국제 교단의 총회장이자 분당햇빛교회 담임목사로 △한기총 공동부회장 △대한민국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고문 등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역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지지를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장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2018 마포구 NGO 자원봉사 박람회

(사)월드뷰티핸즈 주관으로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유동근 청장)이 주최한 '2018 마포구 NGO 자원봉사박람회'가 지난 10월 31일 마포구청 어울림 마당에서 약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NGO 자원봉사박람회에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장현일 이사장, 최에스터 회장) 주관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을 위한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 등 뷰티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 가운데 생전 처음으로 뷰티 서비스를 받아보셨다면서 그 기쁨을 환한 웃음으로 보답하셨으며, 특히 중증 요양시설 치매 어르신도 뷰

티서비스를 받고서 기쁜 모습과 미소로 감사함을 표시해 뷰티봉사자들에게도 큰 감동과 보람을 준 하유했다. 뷰티서비스를 위해서 (사)월드뷰티핸즈 장현일 이사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최에스터 교수(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장선영 교수(경희예술대 미용예술학과), 월드뷰티핸즈의 장민혁 사무총장, 조서연 사무국장, 윤영석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뷰티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사진촬영은 장현일 이사장부터 협력관계를 맺은 (주)빛과 예술로 대표 김광용 작가가, 장수사진약제는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생광나루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뷰티자원봉사자 신청 및 문의도 받고 있다.

‘밀알회원의 밤’ 성황리 개최

나눔 실천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지난 11월 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명작극장에서 제1회 ‘밀알회원의 밤’ 행사를 가졌다.

후원자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후원금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해진 장애 아동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돼 감동을 전했다. 게그맨 김경진과 추대엽의 사회로 후원자들과의 토크콘서트도 펼쳐졌다. 후원자들은 밀알복지재단과의 특별한 인연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뮤지컬 ‘드림스쿨’ 무료공연도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후원자는 “나의 작은 도움이 열매

가 됐음에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준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후원자 분들이 심어주신 밀알들이 더욱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 설립된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등을 위한 46개 운영시설과 7개 지부를 운영, 해외 18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 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2014년에 삼일투명경영대상에서 각각 ‘장애인부문 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 2018년에는 서울시복지상 장애인권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가족세트전도세미나 통해 자신감 충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1급 시작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세트전도 강원도지부장 문종복 목사 초청으로 열린 3학 4일 간의 세트전도훈련 현장교육을 받고 매일전도의 현장에 나가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1월 4일 주일 저녁, 박광명 성도가 저녁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오리 전골 집에 갔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먹은 후 박영수 목사가 가르쳐 준대로 식당 사장을 찾아가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기도를 따라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음의 간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본 간증 기도회를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축복 받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눈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 식당 사장은 아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니다.

박영수 가족세트전도세미나 현장교육을 받은 후 전도가 너무나 쉽게 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요즘은 만나는 영혼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수 목사가 보여 준대로 가르쳐 준대로, 배운 대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니 만나는 사람들이 영접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전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즉시 영접시키니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박영수 목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1급 시작장애인 김재훈 목사(춘천오순절기도원장)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CTS 창사 23주년 기념음악회 ‘2018 희망! 대한민국’

음악계의 거장 윤학원 장로의 지휘로 CTS 예술단 연합으로 하모니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가 음악을 통한 문화 사역을 위해 정단한 CTS예술단(총감독 윤학원)이, CTS창사 23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희망! 대한민국’을 KBS홀에서 지난 8일 열었다.

이날 공연에는 CTS예술단에 소속된 CTS교향악단(지휘/단장 동형준), CTS오카리나오케스트라(지휘/단장 홍광일), CTS장로합창단(지휘 박성일, 단장 주준호), CTS권사합창단(지휘 하찬송, 단장 최용희), CTS서울소년소녀합창단(지휘 이승아), CTS콘서트콰이어(지휘 김해림 / 단장 박경희) 6개 단체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샬’, ‘GAUDEAMUS!(기쁨의 찬양)’, ‘복 있는 사람’ 등을 연주하고, 400여 명의 합창단이(윤학원 장로 지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또 오라토리오 전문기수 소프라노 석현수와 상명



대학교 특임교수 테너 이정원이 특별출연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기도문’을 노래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CTS가 영상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전하게 된 지 23년을 맞이했다.

이번 CTS예술단 공연은 지금까지 CTS의 방송 선

교사역에 문화를 접목해 보다 확장된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음악을 통한 기독교계의 화합과 일치, 세대 간의 하모니를 선사할 창사기념 음악회의 공연실황은 창사기념일인 12월 1일 오후 6시 CTS기독교TV를 통해 방송된다.

ACTS 손신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복지사업 평가

2015년 이래 연속 4년간 우수지자체 선정 공로 인정받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손신 교수가 민간위원장 맡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건복지부 2018 지역복지사업 평가 「'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특별히 손신 교수는 민간위원장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중심의 독자적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히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어와 500ml 30개 들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주제 :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요 3:21)

♡ 모시는글

한해를 돌아보며 또 한해를 준비할 때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사역의 자리에서 힘써 오신 여교역자님들을 위해
아름다운 여교역자국 송년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위로와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올림 -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일시 2018년 12월 10일(월) 낮 12시~오후 5시
장소 일산벤엘교회(조영란 목사 시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64 (지번: 탄현동1491-4)
(전화 031-922-5004, 010-7477-8018)

일정 1부 예배 및 기도회, 2부 지부별 볼링(준비물은 공문을 참조바람)
대상 전국 여교역자 전원
주관 여교역자국
문의 국장 한순남 목사(010-2853-8190), 차장 김바울 목사(010-8652-9340)
후원계좌 농협 352-1333-4784-13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후원 : 총회·각 지방회



정회원장 조중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동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차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선교부장	섭외부장	사회부장	찬양부장	예배부장	봉사부장	정보부장
순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일산벤엘교회 조영란 목사	회복순복음교회 최순자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문교회 이경자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군암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복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안신자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일산지방회 지부장	김포지방회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충북지방회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청주지방회 지부장
서경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예수왕교회 정애스너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사빛기메심온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종성한성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광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경애 목사	목자교회 김현시바 목사	대정산도원 임연임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방회 지부장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부산동지방회 지부장	전북지방회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호남지방회 지부장	인천지방회 지부장	은진지방회 지부장			
홍성순복음교회 김복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길교회 황희숙 목사	순복음종교교회 정복례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신은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장로장립 및 권사안수 임직식



담임 최정식 목사

- 일시 : 2018. 11. 25일(주일) 오후3시
- 장소 : 순복음복된교회 예배당
-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주지방회

안수위원장 : 최정식 목사
안수위원 : 김양인 목사, 주덕영 목사, 조원채 목사, 김정식 목사



최애자



장복향



박복자



윤금희



김연순



순복음복된교회

광주시 북구 무등로80번길8(임동155-3)
☎062) 515-3566, 525-0101, 010-7608-3967

2018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하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 6일(목) 3박 4일
- 장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등록마감 : 2018년 11월 29일(목) 17:00
- 문의 : 02)2677-0692(본 대학원 행정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입장문 ②

에스더기도운동, “[한겨레신문] 규탄한다”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보도와 관련 조목조목 반박…법적 대응 밝혀

또한 2012.12.2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1969년 동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한 수간을 합법화했다”고 하였으며,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 유럽국들은 수간을 금지하고 있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는 합법이다.”라고 하였다.

* 관련기사 : <http://news1.kr/articles/7914522>
* 참조기사 2015.5.13. 국민일보 기사(수간 매춘) <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id=0009435466>

3) ‘동성애 케이크 제작 거부 미국인 1억6천만원 벌금 폭탄’ 이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보도임
이 내용은 2014년에 한겨레가 운영하는 하핑턴 포스트코리아 기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자기 기사를 자기가 부인하는 꼴이다.

*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2014/10/02/story_n_5918360.html
* 관련기사: <https://www.oregonlive.com/pacific-north-west-news/index.ssf/2018/06/oregon-supreme-court-wont-hear.html>

4) ‘동성애 교육 향의 아버지 감옥행’ 이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보도임
이 사건은 2005년 렉싱턴(매시추세츠주)에서 유명한 사건이었다.

* 참고기사 : <https://abcnews.go.com/WNT/story?id=1230620&page=1>

5)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라는 것이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보도임
2018년 8월 25일자 연합뉴스 보도 『국내 에이즈 감염 60%는 ‘동성끼리’…10·20대 위험수위』라

는 제목에서 “18~29세 에이즈 감염자 291명 중에는 동성간·양성간 성접촉이 71.5%(각 50.5%, 21%)나 됐다. 특히 18~19세(14명)에서는 이런 비율이 92.9%(동성간 71.5%, 양성간 21.4%)에 달했다.”고 하였다.

*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4/0200000000AKR20180824128600017.HTML?input=1195m>

6) ‘동성애 커플 주례 거부 목사 징역형’ 이 가짜뉴스라는 한겨레의 보도:

크리스천투데이 2014.10.21.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아이다호 주의 사건으로서 “60세인 목사 부부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이를 거부하고 180일간 투옥 및 1,000 달러의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였다.

* 출처: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75751>

* 출처 : 2014.10.20. FOX NEWS 기사 <http://www.foxnews.com/opinion/2014/10/20/city-threatens-to-arrest-ministers-who-refuse-to-perform-same-sex-weddings.html>

(법 목사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80일과 벌금 1,000달러 선고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되었다는 내용은 외전되어 잘못된 내용이다. 고소장에 의하면, 징역 180일과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되었지만, 법 목사 부부가 재판에서 승소하여 무죄가 되었다. 앞으로는 정정된 내용으로 사용할 것임.)

2. ‘시리아 난민이 동물원에서 조랑말을 강간했다’ 가 가짜뉴스라는 한겨레보도
에스더는 위 내용을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음.

3.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매시추세츠에서는 수업시간에 항문성교를 가르쳤다’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 교수

들이 인용하면서 영상 콘텐츠 등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됐다.”는 한겨레 보도:

위 내용은 당시 극동방송 대담프로그램에서 매시추세츠에 살던 제미교포가 중학생 아들의 성교육 수업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아 나눈 방송 내용임.

4. “미디어 선교’라는 명목으로 성소수자 혐오, 북한 관련 안보 위기 강조, 문재인·박원순 등 특정 정치인 관련 부정적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한겨레보도:

허위사실임 에스더는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표방하지 않는다. 동성애 등 종교적 신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한다. 에스더 홈페이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공지글 참조)

5. ‘에스더 주최 강연에 자주 등장하는 논리 가운데 한민족을 이스라엘 12부족 중 하나인 ‘단’ 부족계보로 보는 ‘한민족 선민론’ 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

허위사실임 지난 10년동안 ‘단’ 부족 계보로 보는 ‘한민족 선민론’ 강연은 없었음.

6. “이스라엘 기둥 에스더, 박근혜 탄핵 반대 때 전면에 등장”이라는 한겨레의 4면 제목기사:

허위사실임 보도사진에 나온 이스라엘 기둥 든 적이 없음, 에스더에게 적폐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가짜뉴스’임.

7. 2017년 “3·1절에 열리는 ‘구국기도회’에 500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하언에 그쳤다.” “동원하지 못한 교인들의 공백은 노인과 탈북자들 그리고 에스더를 비롯한 기독교 내 청년 국우 활동가들이 매웠다.”는 한겨레 보도:

허위사실임 당일 3월1일 오전11시부터 오후5시반까지 이용희 대표와 에스더 전 스태프와 회원들은 분당 지구총교회에서 진행된 ‘원코리아 연합금식성회’에 참석함.

국제독립교회연합 제6회 총회 및 포럼 개최

‘성경적 설교 구속사적 설교’ 주제로 CTS 아트홀서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설립자 박조준 목사, 총회장 정인찬 목사) 제6회 총회 및 포럼이 지난 11월 5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량진 CTS 아트홀에서 ‘성경적 설교 구속사적 설교’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는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의 인도로 이형노 목사의 성경봉독, 이승희 목사(고흥우전교회)의 대표기도, 총회장 정인찬 목사(웨신 총장)의 ‘하나 되어 발전하는 총회’(렘 4:13-18)란 제하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총회장 정인찬 목사는 “일 년을 내다보면 곡식을 심고 심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사랑을 심으라는 말이 있다”면서,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제도권에 얽매이지 않고 교회와 목회자간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교회연합과 일치를 정체성으로 세우고 나아간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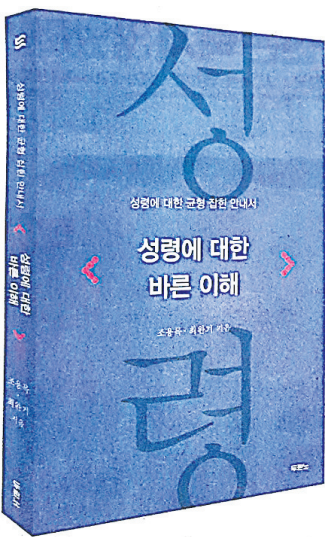
또한 김시철 목사(나사렛총회 증경총감목)와 정균양 목사(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김영수 목사(큰사랑교회)의 예

물기도와 자원위원장 임재환 목사(CTS 사목)의 축사로 마쳤다.

총회장 정인찬 목사가 총회의장으로 나선 총회에서는 정관을 수정·보완하고, 2017년도 수입과 지출 결산보고와 2019년 수입지출 예산보고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정관으로는 제3장 임원 제11조의 기존 ‘감사 1인 이상’을, ‘감사 1인에 회계 1인’으로 변경했다. 또 제16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임원 제13조, 제17조 임원의 직무 등도 변경했다.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사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북한 핵 폐기 프로그램에 진전이 없는 듯 보인다. 미국의 군사당국자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도 꾸준히 곳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도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뒤 미국은 다시 대북 압박카드를 꺼냈고 일본, 중국과의 대북제재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도 강경대응모드로 돌아서고 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주 WP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북은 정상회담까지 하며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근본적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핵실험장 폭파나 미사일 발사대 해체 등은 핵 역량의 실질적 변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결국, 지난 반년 이상 현란한 이벤트만 난무했을 뿐,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미 의회조사처(CRS)이 ‘비핵화 시간표와 핵물질의 양, 핵탄두정보 공개 및 검증 절차를 거부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비핵화 태도에의문이 있다’는 내용의보고서를 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전제로 진행된협상은 사상누각임이 드러나고 있다.

정작 북한의 핵을 머리에 짊어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찬양하는 퍼포먼스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북한 실상을 증언해온 태 전 공사는 ‘동일에 방해되는 행동을 당장 멈추라’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이메일·전화 협박을 받고 6일로 예정됐던 한국기독교교회관 강연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며 최악의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북한 정권을 떠받드는 행태가 공공연히 일어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북한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고 확실한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인위는 누가 지켜주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진북 선동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북한 핵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여호와 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7)

신학대학 동성애자 입학제한

최근 예정 통합 소속의 호남신학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난 7월에 넣었다가, 한 달 만에 철회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문제를 삼음으로 지워졌다고 한다.

또한 호남신대가 학생모집 요강에다 동성애자를 배제시키려는 것은, 지난 해 이 학교가 속해 있는 예정 통합 교단 총회가 결의한대로, ‘동성애자를 학교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에 따른 것인데, 이를 대교협이 가로막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학대학이 존립하는 이유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의 교육과 신학을 통한 기독교 지도자의 배출이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가 될 시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신앙과 양심의 자유(헌법 제22조)에 따른 것

인데, 이것을 제어할 권리가 대교협에 있는 것인가? 이렇듯 신학대학의 존립 이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 소속된 교단과 학교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대교협은 그 단체가 세워진 목적대로, 학교 간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교류하면 되고, 신학대학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천주교에서는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 거부에 관한 것을 지난 2005년부터 교황의 훈령으로 엄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교협은 과연 이런 천주교의 반동성애 정책에 동성애자의 기틀력의 신학교 입학 제한에 대해 제동을 걸 의사는 있는지 묻는다.

이제 곧 입시철을 맞아 이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교협이 기독교를 가볍게 본 것이라면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사정을 몰라서 그러했다면, 당장 압력을 철회하여, 신학대학의 고유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마땅하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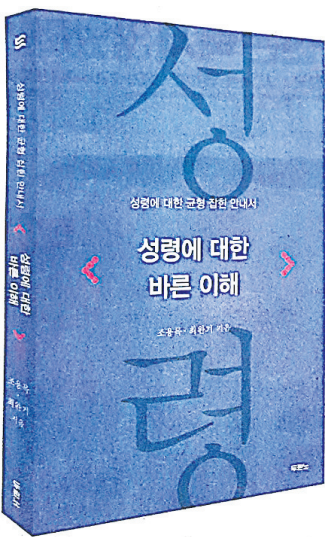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저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학년도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예배

(총회신학교 제7회, 총회목회대학원 제10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제1회)



2017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8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 오후 2시
- 장 소: 총회본부 5층 대성전
- 참석대상: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신학교·목회대학원·사이버신학연구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5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02)2677-0692